추밀공파종회 19차 정기총회

서울 창신동 금호빌딩에서 100여명 모여

▲ 추밀공파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 권정달 대종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07년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 금호빌딩 19층 스카이뷔페에서 추밀공파종회의 제1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입구에는 중앙종친회、정간공종회、매헌공종회、충장공종회 등에서 보낸 화환이 열지어 있고 참석자는 내빈을 포함해 100여 명이었다. 권영빈權寧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되어 권혁승權赫昇 부회장이 회장대행으로서 내빈 소개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였다. 추밀공파종회는 3년 임기의 권이현權彛鉉 종회장이 2005년말에 취임하여 1년이 못되어 급환으로 별세하여 회장을 보선하지 않고 2006년도에 정기총회를 거른 채 권혁승 부회장이 그 잔여 2년 임기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격년차의 정기총회를 맞았다. 권혁승 대행은 인사말에서 파주의 고려통일대전에 추밀공파에서 국재공菊齋公과 세 현조를 모시게 된 경과를 보고하고 2007년도의 회비와 헌성금 수납이 부진하지만 대체로 종중의 분쟁이 진정되고 정상화되어가고 있음이 다행이라 하였다. 권정달權正達 대종회장 겸중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기에 권문에서 제일 큰 파종회의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추밀공종회가 지나가는 해의 묵은 일들이 정리되고 무자년에 발전하기를 바란다. 내가 11월 28일의 능동 추향 전석 대종회 대당회에서 대종회장이 되어 중앙종친회장과 대종회장을 겸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겸해도 되는가 하는 말도 있는데 대종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안정을 찾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해야 할 일이 많다. 문중에서 왜 신문이 두 가지가 나오느냐 하는데 중앙종친회가 발간하는 종보와 신문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다. 당분간은 대종회와 중앙종친회가 하나로 보이는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하나의 언론으로 배포가 되도록 하겠다. 중앙종친회와 대종회의 통합은 각기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무리가 없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추밀공파종회의 협조가 절실하며 대종회 종무위원회에서도 추밀공파 종무위원 수가 제일 많다 ’ 하였다.

권영빈 사무국장이 2007년도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보고를 하였다. 배포된 유인물 내용에 결산액 총합계는 2억9천3백여만원에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 2억3천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940만원이었다. 제향비가 380만원, 단소관리비가 2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및 상여후생비가 1천5백여만원, 사무실유지비가 1천6백여만원으로 총지출이 3천940여만원, 총수입이 3천5백여만원이어서 적자가 420여만원이었다. 권혁승 회장대행은 1년에 20만원 받던 임원회비를 10만원으로 내려서 세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적자가 안나는 쪽으로 비용을 줄이든가 수입을 늘리든가 하겠다고 하였다.

권혁봉權赫鳳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금년도에는 종원회비를 3천5백만원 갹출하여 420여만원 적자가 났는데 명년에는 4천만원을 목표하여 금년도 수준의 안정적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권혁승 회장대행이 승인을 당부하여 통과되었다.

기타토의 순서에서 추밀공종회의 부회장이자 이사직에 있는 권석원權錫遠씨가 발언권을 얻어 준비해온 장문의 질의문을 낭독하고 주의를 모았다. 요지는 회장이 유고인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병환으로 입원하여 종무가 휴면되어 처서가 다가오는데 추밀공、충헌공 단소에 벌초도 할 마련이 없고 다가오는 10월의 향사 준비도 되고 있지가 않았다. 이에 권석원 부회장이 10월 9일에 몇몇 이사들과 회합을 하여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것이 회장대행의 소집권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월권 시비가 일어 권석원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질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석원씨는 이것이 공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였는데 이런 물의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소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권혁승 회장대행은 ‘ 종회가 잘 운영되고 못되고는 회장 책임이다. 회의 소집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다. 임의단체 등 모든 정관이 그러한데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분명한 월권 ’이라고 역설했고 권석원 부회장이 권혁승 부회장의 독선과 부당한 종회 운영 방향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고성과 질타의 언사가 터지자 여러 사람이 서둘러 만류하고 진정시켰다.

<사진 · 글 權炳逸 · 權奇允>

權重吉 도봉갑 국회의원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500여명 참석

▲ 권중길 예비후보사무소가 개소되고 있다.

▲ 권중길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1월 12일 오후 3시 서울 도봉구 창1동 도봉갑지역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행정학박사 권중길權重吉씨의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다.

행사는 이응로 한나라당 지구당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내빈이 소개되었다. 주요 인사로 최동섭 전 건설부장관、서귀용 차관、윤경로 한성대총장、김충용 종로구청장、이상진 아리수포럼 총재 등이 소개 되었다. 한나라당 인사 이강주、홍문표、이상훈、김병관、박정희씨 등이 보낸 150여개의 축하 화한과 화분이 도열되고 김덕룡、홍준표、공성진、안상수、김무용、박형준、권철현、김판길 의원 등 56인이 보낸 축하전문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는 대개가 지역주민인데 원근에서 온 안동권씨도 상당수가 있었다. 최동섭 전 장관은 축사에서 ‘ 과거 건설부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매사에 꼼꼼하고 추진력이 대단하였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참신한 인물이 많이 나서야 한다. 예비후보가 아니라 경선도 통과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경륜을 펴야 한다 ’고 하였다. 뒤이어 서귀용 차관、윤경로 한성대총장、김충용 종로구청장 등의 축사와 덕담이 있었다.

권중길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 산업 현장과 경제이론의 강단에서 선진정치를 향한 맥락을 찾았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꾼들과 땀흘리고 대학강단에서 경제 원리를 강의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아왔는데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 낙후에서 일어선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사가 곧 나의 평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것은 외도 아닌 외도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 정책과 정치、복지후생 등 전반이 선진화되는 때이다. 현장 경험에서 그 순리와 같은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워 나라와 사회에 헌신할 부분에 확신이 서게 되었다 면서 낙후된 도봉구를 서울의 중심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도봉산을 중심으로 쾌적한 도봉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축하객에게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었는데 하객을 대표하여 아리수포럼 총재 이상진씨가 건배 제의를 하였고 사회자의 선창으로 만세사창萬歲四唱을 부르면서 폐회가 되었는데 그 사창은 대한민국만세、도봉구만세、한나라당만세、권중길만세였다.

1952년 경북 예천 출생인 권중길 예비후보는 한성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로 일찍 육군대를 졸업하고 소령 전역하였으며 경희대 행정대학원 총원우회장、한성대 대학원 총원우회장、중소기업경영원 총회장、중소기업진흥원 외래교수、한나라당 환경 부위원장、중앙상임위원、2001국민연대 공동대표、선진화정치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한성대 중소기업대학원 겸임교수、전국생활폐기물협회장、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거나 현임하고 있고 2007년에 제1회 자랑스러운한성인상을 수상했다.

<사진 權奇允 · 글 權炳逸>

謹賀新禧

戊子 새해에 亨運萬福을 받으십시오.

주문떡전문
身土不二떡방앗간
학교 및 단체 급식
백일 · 잔치 · 고사 · 폐백
떡 · 고추방아
대표 權裕和

안동권씨서울북부화수회 부회장
방앗간:서울 강북구 수유5동
조병옥선생 묘소입구
전 화 02)991-3334 · 야 간 02)907-6657
휴대전화 016-754-6657
주문에 출장 배달합니다.